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주요 다자협의체의
과학기술 의제 및 거버넌스

Major Multilateral
STI forums
And Their Agendas &
Governance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 연구
A study on Global STI Agenda
-Setting for the Post-2030 Era

출 처	이명화, 이다은(2024). "제2장: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선인경 외.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 연구(1차년도): 제1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11-45.
-----	---

기재된 내용은 집필자 자신의 개인 의견이며 소속기관의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기재된 내용은 출처와 저자를 밝히는 한 부분적으로 발췌 또는 인용될수 있습니다

제1절 개요

1. OECD 기관 개요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1961년 9월 30일에 설립되었고,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23년 기준 38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¹⁾,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었다.²⁾ OECD의 목표는 회원국의 경제성장 및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다자주의와 비차별적 원칙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외교부, 2023).

OECD의 전신이었던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마셜플랜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1948년 18개 서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유럽의 경제상황이 회복되는 한편, 미국의 국제수지적자가 증가하는 등 대외 정세변화에 따라 1961년, 기존 17개 OEEC 회원국에 스페인, 미국, 캐나다 3개국이 참여하여 총 2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 OECD로 출범하였다(외교부, 2023).

오늘날 OECD는 호주 전 재무장관이었던 Mathias Cormann이 현재 사무총장(Secretary-General)으로 있으며, OECD 설립 50주년이었던 2011년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fe’라는 슬로건을 유지하고 있다.

1)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2)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페루, 루마니아가 가입후보국으로서 가입 절차를 밟고 있음

2. CSTP 역할과 중요성

OECD의 주요 활동 및 기능으로는 첫째,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 둘째, 회원국 간 정책경험 공유 및 교류를 통한 상호 학습(peer learning) 및 상호 압력(peer pressure), 셋째, 각종 선언(declaration), 권고(recommendation), 약정(arrangement)과 같은 규범 제정(rule making) 기능, 끝으로 국제사회에서 OECD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원국 확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외교부, 2023).

OECD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CSTP)에서도 정책 연구, 상호학습, 규범 제정, 회원국 확대 노력을 수행해 오면서 글로벌 차원의 과학기술 의제를 선도해 왔다. CSTP의 구체적인 임무에 관해서는 정관(mandate)에 명시하여 매 5년마다 개정해오고 있으며, 현 정관은 2019년 CSTP 제115차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여 갱신을 앞두고 있다. 세부적인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OECD Council, 2022, p. 9).

- 과학기술혁신이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과정 및 관련 자원 개발
- 회원국 간 과학기술혁신 정책 대화 증진
- 새로운 의제 개발 및 향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 분석
- 공공인식 개선을 통해, 산학협력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
- 정책기반 강화를 통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기제 마련
-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과학기술혁신정책 발전과정공유 및 역량교류 증진

CSTP에서는 정책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회원국들로부터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최신의 정책 사례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의제들을 도출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물 중 하나인 과학기술혁신 전망 보고서(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STI Outlook)는 2년에 한 번 격년으로 발간 되는데 발간 당시 가장 핵심적인 정책 및 과학기술 변화와 함께 향후 전망을 담고 있다.

또한 OECD 차원에서 발표되는 선언문, 권고문 등 국제규범들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논의가 변화·발전되어 왔다. 한국이 2009년 최초로 OECD 각료이사회

(Ministerial Council Meeting) 의장국을 수입하면서 도출하였던 ‘녹색성장 선언 (Green Growth Declaration)’은 경제성장과 상반되는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존 논의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외교부, 2023, p. 202). 또한 2019년에 발표된 ‘신경기술의 책임 있는 혁신에 관한 권고문(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sponsible Innovation in Neurotechnology)’은 유네스코의 ‘신경기술 윤리 권고문(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Neurotechnology)’로 이어져 뇌과학 분야의 윤리적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다.

이렇게 CSTP가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의제를 선도해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국가 간 비교가능한 통계 생산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CSTP의 산하작업반 중 하나인 과학기술지표작업반(National Expert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NESTI)을 통해 국가별 연구개발 활동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정의와 분류체계를 제공하는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을 1963년에 발간한 것과 국가별 혁신정책의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해 1992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오슬로 매뉴얼(Oslo Manual)’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는 통계 기준이 되어 왔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2; OECD 2005). 이 기준들을 통해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 현황이나 성과 등이 OECD를 통해 집계되면서 국가별 비교가 가능해졌다. 또한 회원국들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최신 자료들은 2년마다 STIP Compass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 국가 간 상호 학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³⁾.

3. 거버넌스

가. OECD 지배구조 및 작동방식

OECD는 크게 이사회(Council), 위원회(Committees), 사무국(Secretariat) 세 가지 조직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기능을 맡고, 위원회 및 작업반에서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맡으며, 사무국에서는 행정부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3) OECD STIP Compass, <https://stip.oecd.org/stip/>(검색일: 2024.10.13.).

OECD 각 회원국에서는 상주대표이사회에 각국 대사가 참여하고, 위원회 및 작업반에는 각국의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및 정책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⁴⁾

[그림 1] OECD 지배구조 및 주요 조직



자료: 외교부(2023), p, 37.

1) 이사회 (Council) - 의사결정 기능

이사회는 OECD의 의사결정 조직으로서,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고, 의장은 OECD 사무총장(Secretary-General)이 맡는데, 이를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라고 부른다. 전세계 OECD 회원국 대표 1인과 OECD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각료이사회는 매년 개최된다.⁵⁾ 최근 각료이사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4) OECD Organisational structure, <https://www.oecd.org/en/about/organisational-structure.html> (검색일: 2024.9.3.).

5) 각 회원국의 주OECD 대사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은 기획재정부 전 차관인 최상대 대사가 현재 활동하고 있음. OECD Ambassadors, <https://www.oecd.org/en/about/ambassadors.html>(검색일: 2024.9.3.).

<표 1> 최근 OECD 각료이사회 개최 주제

개최연도	각료이사회 주제
2016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향상 Enhancing Productivity for Inclusive Growth
2017	세계화를 위한 노력: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 Making Globalisation Work : Better Lives for All
2018	보다 책임감 있고 효과적이며 포용적인 결과를 위한 다자주의의 기반 재구성 Reshaping the Foundations of Multilateralism for more Responsible, Effective, and Inclusive Outcomes
2019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 활용: 기회와 과제 Harnessing Digital Trans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2020	회복의 길: 강력함, 회복력, 친환경적, 포용성 The Path to Recovery: Strong, Resilient, Green and Inclusive
2021	공유된 가치: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미래 구축 Shared Values: Building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2022	우리가 원하는 미래: 차세대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정책 The Future We Want: Better Policies for Next Generation and Sustainable Transition
2023	회복력 있는 미래 확보: 공유된 가치와 글로벌 파트너십 Securing a Resilient Future : Shared Values and Global Partnerships
2024	변화의 흐름 공동 창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방식으로 글로벌 논의를 주도 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자료: 외교부(2023), pp.14~15 내용을 토대로 일부내용을 업데이트함

주: 2021년은 사무총장 교체 및 OECD 설립 60주년 일정 등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개최

이사회 직속으로는 운영, 예산 등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가 설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대외관계위원회(External Relations Committee) 등이 있다. 또한 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평가위원회(Evaluation Committee)와 같은 이사회 직속 특별기구도 있다.

2) 위원회 (Committees) - 정책 싱크탱크 기능

정책 부문별로 여러 위원회(Committee) 및 하위 작업반(working party)으로 구성된다. 300개 이상의 위원회 및 산하작업반에서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의 글로벌 공통 표준 및 원칙을 제시하는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이다. 위원회 및 작업반에서는 주요 공공정책 부문에 대한 글로벌 및 회원국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관련 정책대화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정책 싱크탱크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3) 사무국 (Secretariat) - 행정 기능

현재 OECD 사무총장은 Mathias Cormann이며, 4명의 사무차장을 두고 있다. 사무국은 분야별 각 국(Directorate)으로 구성되어, 각 위원회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한다. 한국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분야별 여러 정부부처를 두었듯, OECD 역시 여러 분야별 국을 두어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사무차장 4인의 보좌 및 지원을 받아 사무국을 총괄하며, 현 사무총장 Mathias Cormann은 2026년 5월까지 임기가 5년이다.

<표 2> 역대 OECD 사무총장

재임 기간	성명	국적
1961~1969	Thorkil Kristensen	덴마크
1969~1984	Emile van Lennep	네덜란드
1984~1996	Jean-Claude Paye	프랑스
1996~2006	Donald J. Johnston	캐나다
2006~2021	Angel Gurría	멕시코
2021~현재	Mathias Cormann	호주

자료: 외교부(2023), p. 18.

파리 본부에 약 3,500여 명의 사무국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사무국은 OECD 운영을 위한 4개 행정국(Corporate Directorates)과 정책 분야별 16개 정책국(Policy Directorates), 총 20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 행정국은 집행총국(Executive

Directorate: EXD), 커뮤니케이션국(Directorate for Communications: COM), 법률국(Directorate for Legal Affairs), 이사회 및 집행위 사무국(The Council and Executive Committee Secretariat: CES)이 있다. 16개 정책국은 과학기술혁신정책부터 교육, 공공 거버넌스, 환경, 고용노동, 세금정책, 통계 및 데이터, 무역 및 농업, 국제관계 등을 총 망라하고 있다.⁶⁾

각 사무국에서는 주제에 따라 여러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을 지원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혁신사무국(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DSTI)은 과학기술혁신에 관련된 위원회를 관할하는데,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역시 DSTI의 관할이다. CSTP 외에도 디지털정책위원회(Digital Policy Committee)와 소비자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Committee on Industr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역시 DSTI 사무국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⁷⁾

나. OECD CSTP의 구성

OECD에서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이슈는 과학기술혁신사무국(DSTI)에서 관할한다. DSTI에서 관할하는 과학기술혁신 관련 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뿐만 아니라, 디지털정책위원회(Digital Policy Committee),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Committee on Industr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소비자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 철강위원회(Steel Committee), 조선위원회(Shipbuilding Committee)가 있다.⁸⁾

6) OECD Organisational structure, <https://www.oecd.org/en/about/organisational-structure.html>(검색일: 2024.9.3.).

7) OECD On-Line Guide to OECD Intergovernmental Activity, ” <https://oecdgroups.oecd.org/Bodies/ListByDirectorateView.aspx>(검색일: 2024.9.3.).

8) OECD On-Line Guide to OECD Intergovernmental Activity, <https://oecdgroups.oecd.org/Bodies/ListByDirectorateView.aspx>(검색일: 2024.9.3.).

<표 3> OECD 과학기술혁신사무국(DSTI) 관할 위원회(Committees)

DSTI 산하 위원회 목록	
과학기술혁신사무국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DSTI)	
	과학기술정책위원회(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디지털정책위원회(Digital Policy Committee)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Committee on Industr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소비자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
	철강위원회(Steel Committee)
	조선위원회(Shipbuilding Committee)

자료: OECD 홈페이지⁹⁾

여기에서는 이 위원회들 중에서 과학기술 의제와의 관련성이 높고, 한국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CSTP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CSTP는 1972년 2월 3일 창설되었으며,¹⁰⁾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과학기술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CSTP 산하에는 총 4개의 작업반(working parties) 및 포럼(foru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혁신정책작업반(TIP), 과학기술지표작업반(NESTI), 생명공학·나노기술·융합기술작업반(BNCT), 글로벌과학포럼(GSF)이 포함된다.

<표 4> OECD 과학기술혁신사무국(DSTI) 관할 위원회(Committees)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산하 작업반 및 포럼 목록	
과학기술정책위원회(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CSTP)	
작업반	기술혁신정책작업반(Innovation and Technology Policy: TIP)
	과학기술지표작업반(National Expert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NESTI) * 연구개발혁신 행정데이터분석 전문가그룹(MARIAD, OECD Expert Group on the Management and Analysis of R&D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Data)
	생명공학·나노기술·융합기술작업반(Biotechnology, Nanotechnology, and Converging Technologies: BNCT)
포럼	글로벌과학포럼(Global Science Forum: GSF)

자료: 연구진 작성

주: 이 밖에도 CSTP 차원에서 우주포럼(Space Forum), 오션그룹(Ocean Group) 논의를 참고하지만, 이들은 CSTP가 아닌 과학기술정책국(DSTI) 산하 작업반임

9) "On-Line Guide to OECD Intergovernmental Activity," <https://oecdgroups.oecd.org/Bodies/ListByDirectorateView.aspx>(검색일: 2024.9.5.).

10) 과학기술정책위(CSTP)의 전신이었던 과학연구위원회(CSR, Committee for Scientific Research)는 1961년 설립되었고, 오늘날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는 1972년 2월 3일 설립되어 2022년 CSTP 50주년을 맞이함. CSTP 산하 작업반의 경우, NESTI는 1962년, TIP은 1993년, GSF는 1999년, BNCT는 타 작업반과의 흡수통합을 거쳐 2015년 출범함.

<표 5> OECD 과학기술혁신정책위원회(CSTP) 산하 작업반 개요

작업반 및 포럼 (설치연도)	주요 활동 내용
기술혁신정책작업반(TIP) (1993)	지식 기반 새로운 발전 동력 발굴 및 혁신시스템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안 모색
과학기술지표작업반(NESTI) (1962)	과학기술 전반의 측정기준 및 지침서를 개발하며 개발된 방법론을 회원국과 참여국에 권고하여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과학기술분야 지표규범창출을 목표
생명공학·나노기술·융합기술 작업반(BNCT)(2015)	생명공학, 나노기술, 그리고 이들 간 혹은 여타 분야 (ICT)와의 융합 기술 정책 이슈를 다루면서 상업화, 연구윤리, 사회적·경제적 함의 등을 발굴
글로벌과학포럼(GSF)(1992)	거대과학, 과학인프라, 연구자 육성, 연구방법론 등 우수 정책 사례 발굴 및 연구

자료: 외교부(2023), p. 130.

기술혁신정책작업반(Innovation and Technology Policy: TIP)은 1993년 경제적, 사회적 도전의제 해결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되었다. 지식 기반 신 발전 동력을 발굴하여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실현을 추구하고, 특히 지역 내 글로벌가치사슬(GVC) 혁신 등 구조적 변화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개최된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

과학기술지표작업반(National Expert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NESTI)은 1962년 지표와 양적방법론의 발전을 위해 통계적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관리하여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고자 설립되었다. 정보 계량학, 특허권 등의 연구 분야에서 지침서 및 측정기준을 개발, 개발된 방법론을 회원국과 참여국에 권고하여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지표규범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9~12월 중 연 1회 개최된다. 한편, 과학기술지표작업반(NESTI) 산하에는 연구개발혁신 행정데이터 분석에 관한 별도 전문가그룹(MARIAD, OECD Expert Group on the Management and Analysis of R&D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Data)이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

생명공학·나노기술·융합기술작업반(Biotechnology, Nanotechnology, and Converging Technologies: BNCT)은 2015년 생명공학작업반, 나노기술작업반을 융합하여 창설되었다. 생명공학, 나노기술, 그리고 이들 간 혹은 여타 분야(ICT)와의

융합 기술 정책 이슈를 다루되 상업화, 연구윤리, 사회적·경제적 합의 등에 집중하고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5월과 12월, 연 2회 개최된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

글로벌과학포럼(Global Science Forum: GSF)은 1992년 과학 인프라 구축을 위한 메가과학포럼으로 창설되었고, 1994년 국제적 수준의 과학협력을 위해 조직이 확대되어 1999년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과학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 연구주제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건강한 과학 인프라 구성, 재정 및 인적 자원 공급을 위해 기초과학 및 융합학문 지원책을 구성, 구체적으로 연구 환경 및 인프라, 연구 평가 방법 및 개방, 개별 연구자 육성책 외 경력 개발 포함, 신 연구방법론 교환과 네트워크 형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방법론 융합, 우수 과학정책 사례 공유 등이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4월과 11월, 연 2회 개최된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 다른 작업반들이 OECD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구성되는 Part I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글로벌과학포럼은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자발적 부담금으로 구성되는 Part II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운영 상 차이점을 가진다.

4. 한국 참여 및 역할

OECD는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Part I 예산과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자발적·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Part II 예산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1996년 가입 이후, 오늘날 OECD 회원국의 Part I 예산 부담금¹¹⁾ 규모 기준, 38개국 중 8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는 OECD 참여국으로 성장했다. Part 예산 부담금 1위는 미국이 19.1%로 1위, 일본이 9.0%로 2위, 독일이 7.5%로 3위이며, 한국은 3.5%로 8위에 있다(외교부, 2023, p. 45).

11) OECD는 Part I 예산의 30%는 균등 배분하고, 70%는 회원국의 경제규모를 반영한 부담률을 산정하여 회원국이 부담하도록 산정하고 있음.

<표 6> OECD 회원국의 Part I 예산 부담금·분담률 현황(2023년 기준)

	국가명	부담금 (유로)	최종 분담률 (%)
1	미국	41,352,372	19.1
2	일본	19,426,895	9.0
3	독일	16,229,288	7.5
4	영국	11,633,099	5.4
5	프랑스	11,050,233	5.1
6	이탈리아	8,442,908	3.9
7	캐나다	7,886,738	3.6
8	대한민국	7,560,451	3.5
9	호주	6,762,532	3.1
10	스페인	6,333,91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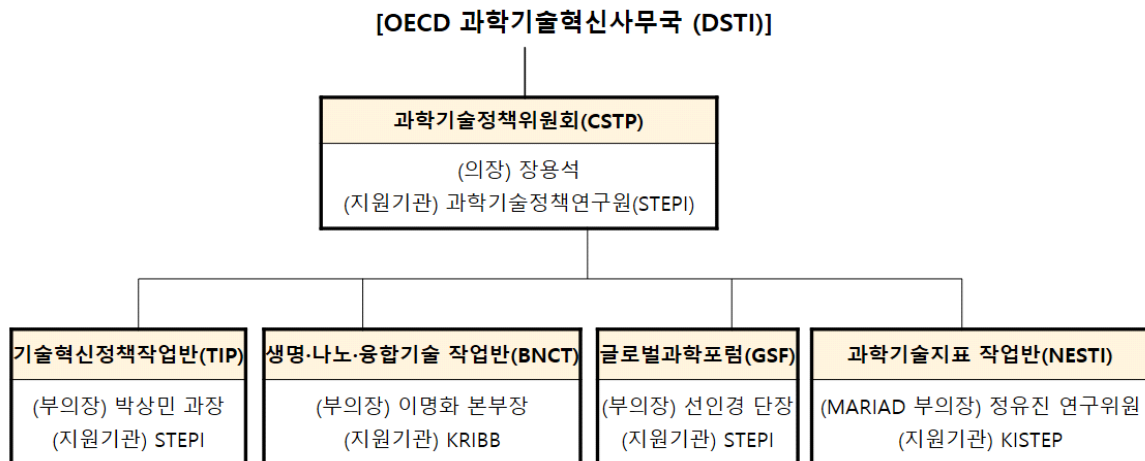
자료: 외교부(2023), p. 46.

한국은 1996년 가입 이후, 2009년 최초로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의장 수임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당시 ‘OECD 녹색성장 선언(Green Growth Declaration)’을 도출하여 한국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그 밖에 2009년 전후로,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직을 다섯 차례(1998년, 2006년, 2015년, 2019년, 2021년) 맡는 등 OECD 내 한국의 위상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이 밖에도 파견자, 컨설턴트, 인턴 등 OECD 사무국 내 한국인 수는 2023년 기준 100여명에 달한다(외교부, 2023, p. 202).

한편,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및 산하 작업반에는 한국인이 의장단에 진출하여 적극 활동 중에 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의장(Chair)으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장용석 명예연구위원이 2021년부터 활동 중에 있으며, 산하 거의 모든 작업반에도 한국인이 부의장(vice-chair)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술혁신정책작업반(TIP)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상민 과장이, 생명공학·나노기술·융합기술작업반(BNCT)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명화 박사가, 글로벌과학포럼(GSF)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인경 박사가 부의장으로 활동 중이며, NESTI 산하 전문가 그룹인 연구개발혁신 연구행정데이터분석 전문가그룹(MARIAD)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정유진 박사가 부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처럼 국내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위원회(CSTP) 의장단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OECD 차원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¹²⁾

[그림 2] OECD CSTP 및 산하작업반별 한국인 진출 현황(2024.9월 현재)



자료: 연구진 작성

12) DSTI 관할 위원회 중에서는 앞서 언급했듯 과학기술정책위(CSTP) 외에도 디지털경제정책위(CDP)에도 한국의 참여가 두드러지는데, CDP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과기정통부와 함께 적극 참여 중에 있으며, 과학기술정책위(CSTP)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분야별 여러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

<표 7> OECD CSTP 및 산하작업반별 의장단 현황(2024.2월 기준)

구분	의장단		OECD 담당
과학기술정책위원회 (CSTP)	의장	Mr. 장용석 (한국)	담당국: 과학기술혁신국(STI) (국장: Jerry Sheehan) 담당과: 과학기술정책과(STP) (과장: Alessandra Colecchia)
	부위원장 (6명)	Mr. Alexandr Hobza (유럽연합)	
		Ms. Meg Flanagan (미국)	
		Mr. Yutaka Hishiyama (일본)	
		Mr Patrick Vock (스위스)	
		Una Strand VidarsDotir (아이슬란드)	
Mr. Christian Naczinsky (오스트리아)			
과학기술혁신작업반 (TIP)	의장	Mr. Göran Marklund (스웨덴)	Caroline Paunov (DSTI/CSTP)
	부위원장 (7명)	Mr. 박상민 (한국)	
		Mr. Kai Husso (핀란드)	
		Mr. Jean-François DIONNE (캐나다)	
		Mr. Alberto Di Minin (이탈리아)	
		Mr. Tiago Pereira (포르투갈)	
		Ms. Nidia Copet (콜롬비아)	
Mr. Tyler RICKARD (영국)			
글로벌과학포럼 (GSF)	의장	Ms. Amanda Collis (영국)	Carthage Smith (DSTI/CSTP)
	부위원장 (7명)	Ms. 선인경 (한국)	
		Mr. Susumu Kajiwara (일본)	
		Ms. Jeannette Ridder-Numan (네덜란드)	
		Mr. Patrick Monfray (프랑스)	
		Mr. Juha Latikka (핀란드)	
		Mr. Luis Sanz-Menendez (스페인)	
Ms. Kendra Sharp (미국)			
과학기술지표작업반 (NESTI)	의장	Ms. Cecilia Cabello Valdes (유럽연합)	Fernando Galindo-Rueda (DSTI/CSTP)
	부위원장 (6명)	Mr. Andreas Schiefer (오스트리아),	
		Ms. Lucy Chung (캐나다)	
		Mr. Christian Rammer (독일)	
		Mr. Tomohiro Ijichi (일본)	
		Mr. Nils Adriansson (스웨덴)	
Ms. Emilda Rivers (미국)			
바이오나노융합작업반 (BNCT)	의장	Mr. Luís Viseu Melo (포르투갈)	David Winickoff, Hermann Garden (DSTI/ BNCT)
	부위원장 (6명)	Ms. 이명화 (한국)	
		Mr. Fabio Fava (이탈리아)	
		Ms. Ana Nieto (유럽연합)	
		Ms. Kathleen Stevens (미국)	
		Dr. Yoshiyuki FUJISHIMA (BIAC)	
Dr. Isabel Webb (영국)			

자료: 연구진 작성

제2절 주요 의제

1. 의제 설정 프로세스

가. 개요

OECD의 각 위원회(committees) 및 산하작업반(working parties)는 2년 단위로 사업계획 및 예산 배분(Programme of Work and Budget: PWB)이 이루어진다. 즉, PWB 2025-26, PWB 2023-24, PWB 2021-22와 같이 홀수연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짝수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 일정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년 동안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기획 작업은 2년 전(N-2년)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2023~2024년 2년 동안 수행할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예산을 할당하는 과정을 2년 전인 2021년 하반기부터 착수하여 기획 절차를 밟게 된다. 예를 들어, 2021년 하반기에는 2023년 사업의 우선순위, 희망 산출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2022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차기 사업연도 연구주제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사업 계획에 대한 초안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때 OECD 차원의 주요 비전과 가치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OECD 차원의 전체 방향성, 사무총장의 비전, 각료이사회의 주요 현안, 그 밖에 주요 유관 국제기구의 현안 등을 고려하게 된다. 아울러, 실제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는 각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의 중장기 연구주제 연속성도 함께 고려한다. 이후 2022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연구주제에 대한 회원국의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23~2024년도에 운영할 사업 목록을 확정하고, 2023년 상반기부터는 프로젝트 운영에 착수하게 된다. 이처럼, 2년 동안 해당연도 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차기 2년의 사업을 기획하는 일정이 맞물리며 반복된다.

<표 8> OECD의 사업계획 일정 및 절차 개요

N-2년도 하반기	N-1년도 상반기	N-1년도 하반기	N년도
2021년 7~12월	2022년 1~6월	2022년 7~12월	2023년
우선순위 탐색 예상 산출물 논의	▶ 하향식과제 기획 및 사업계획 초안 작성	▶ PWB 제안서, 우선순위 조정 등 종합검토 및 확정	▶ PWB 2023-2024 착수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의제분석 대상 데이터

OECD에서 주도하는 과학기술 정책의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OECD 과학기술정책위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부터 주요 발간물, 국제 행사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

먼저,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는 OECD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의 비전과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OECD는 과학기술정책위가 주도하여 2004 파리 과학기술 장관회의, 2015 대전 과학기술 장관회의, 2024 파리 과학기술 장관회의 세 차례의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각 장관회의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 장관회의에서 채택하는 선언문 등을 분석함으로써 OECD 과학기술 정책의제의 중장기 가치와 비전, 당대 핵심 쟁점과 이슈, 그리고 핵심 키워드 등을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이다.

<표 9> 2000년 이후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 개요

장관회의명	주제 및 주요 내용
2004 파리 과학기술 장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언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과학 기술 협력 선언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 대전 과학기술 장관회의 (세계과학정상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언문: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위한 대전 선언문(Daejeon Declaration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for the Global and Digital Age)

장관회의명	주제 및 주요 내용
2024 파리 과학기술 장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언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한 변혁적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파리 선언문 (Declaration on Transforma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for a Sustainable and Inclusive Future)

자료: 연구진 작성

2) OECD 법률문서

한편, OECD 법률문서(legal instruments)를 통해서도 당대 핵심적인 OECD 과학기술 정책의제를 가늠할 수 있다. OECD 법률문서는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서 채택한 일종의 법 규범을 의미하는데, 가령 OECD 과학기술정책위에서 채택한 권고문(recommendations), 선언문(declarations) 등이 해당될 수 있다. OECD 법률문서는 중요 과학기술 정책의제에 대해서 권고문 혹은 선언문 형태로 규범화함으로써 해당 의제에 대한 회원국 및 비회원국들의 지지와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¹³⁾ 뿐만 아니라, OECD에 가입하려는 비회원국에게는 OECD 권고문이나 선언문들과 해당 국가의 정책들이 얼마나 잘 부합되고 있는가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9월 현재, OECD 과학기술정책위에서 채택한 법률문서는 총 16개로 확인된다. 폐지된 3개를 제외한 13개가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연구데이터,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3개 권고문은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표 10> OECD CSTP 법률문서(legal instruments) 목록 (2024.9월 기준)

	권고안 명	채택일시	현황
1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변혁적 과학기술혁신정책 선언문 Declaration on Transforma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for a Sustainable and Inclusive Future	2024.04.24	시행 중
2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 강화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Enhancing Access to and Sharing of Data	2021.10.06	시행 중

13) OECD에서 채택한 모든 법률문서들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OECD Legal Instruments,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검색일: 2024.9.12.).

	권고안 명	채택일시	현황
3	신경기술의 책임 있는 혁신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sponsible Innovation in Neurotechnology	2019.12.11	시행 중
4	글로벌 및 디지털 시대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대전 선언문 Daejeon Declaration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for the Global and Digital Age	2015.10.21	시행 중
5	임상시험 거버넌스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Governance of Clinical Trials	2012.12.10	시행 중
6	바이오 기반 제품의 지속 가능성 평가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ssessing the Sustainability of Bio-Based Products	2012.07.17	시행 중
7	인간 바이오뱅크 및 유전자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Human Biobanks and Genetic Research Databases	2009.10.22	시행 중
8	분자 유전자 검사 품질 보증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Quality Assurance in Molecular Genetic Testing	2007.05.10	시행 중
9	공공 자금 지원을 통한 연구 데이터 접근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	2006.12.14	시행 중 (2021.01.20 개정됨)
10	유전자 발명 라이선스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Licensing of Genetic Inventions	2006.02.23	시행 중
1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과학 기술 협력 선언문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4.01.30	시행 중
12	기업 및 기업 간 국제 기술 협력 촉진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acilitating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with and among Businesses	1995.09.27	시행 중 (2022.01.25 개정됨)
13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1988.04.21	시행 중 (2021.06.23 개정됨)
14	공공 자금 지원을 통한 연구 데이터 액세스 선언문 Declaration on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	2004.01.30	2017.07.01 폐지됨
15	과학 기술을 위한 미래 정책 선언문 Declaration on Future Polici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1981.03.19	2017.07.01 폐지됨
16	유럽 회원국의 광물 탐사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Mineral Prospecting in European Member Countries	1963.10.29	1992.11.10 폐지됨

자료: OECD Legal Instruments,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검색일: 2024.9.12.).

3) OECD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OECD 과학기술혁신 전망(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OECD STI Outlook)’은 OECD 과학기술정책위에서 2년마다 발간하는 핵심 발간물이다. 2년 단위로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주요 동향과 이슈를 담아내고 있으며, 무엇보다 앞서 소개한 매 2년 단위로 수행되는 OECD 과학기술정책위 및 산하 작업반의 핵심 결과물을 담아내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본지에서는 OECD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의제 흐름을 파악하고자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발간된 총 13개년도¹⁴⁾의 OECD 과학기술혁신 전망 보고서를 살펴보았다.¹⁵⁾

4) OECD 과학기술정책위의 사업계획 및 예산(PWB)

공공정책 분야별로 구성된 OECD의 위원회 및 산하작업반은 공통적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PWB)’라는 틀 안에서 회원국의 선호, 각 위원회의 연구주제 연속성, OECD 차원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 동안의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예를 들어 “OECD CSTP PWB 2023-2024”라 함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및 산하 작업반(TIP, NESTI, BNCT, GSF)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별 예산 규모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앞서 언급했던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와 OECD 과학기술정책위의 핵심 발간물인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OECD STI Outlook)’은 공통적으로 2년 단위로 기획하고 운영되는 PWB라는 틀 안에서 파생되는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PWB는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의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이자 시작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PWB는 OECD 기관 차원의 가치와 비전이라는 큰 틀 하에서 이제까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해온 연구주제의 연속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14) ‘OECD 과학기술혁신 전망’은 통상적으로 짝수년도에 발간되어 왔으나, 2001년 1회 추가적으로 발간되었으며, COVID-19의 여파로 2020년 발간예정이었던 것이 2021년으로 지연 발간됨. 따라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3번(2000, 2001,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1, 2023)의 ‘OECD 과학기술혁신 전망’이 발간됨.

15) OECD iLibrary는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OECD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 보고서, 분석결과 등을 개방(open access)하여, 전자파일 버전을 열람할 수 있음; OECD iLibrary, <https://www.oecd-ilibrary.org/>(검색일: 2024.10.13.).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과제 목록 및 예산배분 확정 단계에서는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지지를 얻어야만 예산을 실어 2년 동안 과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PWB는 OECD 기관 차원의 중장기 가치와 비전,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도 2년 단위로 회원국에서 중요시하는 정책 의제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되어 있는 과학기술 정책의제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분석대상으로서 그 가치를 지닌다.

PWB 문서는 공식적으로 발간되어 외부에 공개되는 문건이 아닌 만큼, 연구팀은 OECD 과학기술정책위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책혁신국(DSTI) 측에 요청하여 2000년 이후 OECD 과학기술정책위의 PWB 목록을 확보했다. 연도별 PWB 목록에서는 각 프로젝트별 담당 산하 작업반, 연구비 규모 및 출처 정보 등이 담겨 있다.

다음부터는 2000년대 이후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 법률 문서, 과학기술혁신 전망, 과학기술정책위의 사업계획 및 예산 내용을 토대로, OECD 차원에서 논의된 주요 과학기술 정책의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주요 의제

가. 의제분석 틀

OECD에서 발간된 다양한 보고서들과 통계, 그리고 총회에서 다뤄진 의제들을 고려해 볼 때, OECD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뤄진 이슈들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눠 본다면, 거시 담론과 과학기술 인력, 세부 기술, 연구데이터, STI 정책 차원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이슈들은 10년 단위 혹은 15년 단위로 변해 온 만큼, 본 연구에서는 시기를 2010년 이전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2021년 이후로 구분해 보았다.

우선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고려해 보면, 2010년 이전에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과학기술에의 공공자금 투자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후, 2016년 다보스 포럼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들이 확산되었으며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화두로 등장하였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으며, 과학기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2022년 말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과학 기술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과학기술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는 OECD CSTP가 개최하였던 과학기술 장관회의의 선언문 제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04년 파리에서 개최된 장관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과학 기술 협력 선언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협력이 강조된 반면, 2015년 대전에서 개최된 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및 디지털 시대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대전 선언문(Daejeon Declaration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for the Global and Digital Age)’ 이름으로 글로벌화, 디지털화가 강조되었다. 가장 최근에 파리에서 열린 2024년 장관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변혁적 과학기술혁신정책 선언문(Declaration on Transforma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for a Sustainable and Inclusive Future)’이라는 제목으로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이 강조되었다.

<표 11> OECD 과학기술정책위의 핵심 이슈 변화

구분	2010년 이전	2011~2020년	2020년 이후
담론	지식기반 경제 Knowledge-based economy	지식기반 경제/전환 Knowledge-based economy/Transition	전환/변혁 Transition/Transformative
과학기술 인력	이동성(mobility)/ 경력경로	-	변혁에 대한 준비역량/ RelCO 론칭으로 경력경로/ (연구 취약계층)
세부기술	나노기술, 유전자연구	나노기술, 신경기술, 디지털기술, 책임있는 혁신	합성생물학, 신형기술 거버넌스
연구 데이터	연구데이터 접근성	오픈 사이언스	오픈사이언스(연구안보, 시민과학, 데이터 거버넌스)
STI 정책	정책 평가, 민간 R&D	과학기술의 파급효과	R&D 펀딩/ 임무지향형 혁신정책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 및 의제별 변화 양상

1) 정책담론

OECD에서 다뤄진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담론 차원의 이슈들을 PWB 프로젝트를 통해 살펴보면, 2010년대 초반까지는 지식기반 경제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보인다.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라는 개념은 훨씬 이전부터 등장하였지만, 1990년대 말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OECD, 월드뱅크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지식기반 경제의 특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전환(transition)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보다 강력한 변화를 강조하는 변혁(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STI Outlook에서도 살펴보면, 2000년과 2002년 첫 번째 챕터로 지식기반 경제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으며, 2012년에는 녹색 혁신으로의 전환, 2023년에는 지속가능한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전환(transition)이라는 이슈가 활발하게 다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2〉 담론 관련 OECD PWB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연도
1	Indicators for Knowledge-Based Economies	2001-2002
2	Investment in knowledge	2003-2004
3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novation and Diffusion of Knowledge	2005-2006
4	Report on financing, transferring and commercialising knowledge	2011-2012
5	Report on global knowledge and innovation network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national specialisation in research and innovation	2011-2012
6	Report on financing, transferring and commercialising knowledge	2011-2012
7	Two statistical reports on the changing landscape of knowledge sharing mechanisms	2013-2014
8	Deepening of statistical work on the changing landscape of knowledge sharing mechanisms	2013-2014
9	One policy recommendation on “Towards an STI and Development Strategy”, deepening of the work on development and, depending on availability of new voluntary contributions, a Global Forum on the Knowledge Economy	2013-2014
10	System transformation through innovation: one report	2015-2016
11	Financing STI for the SDGs: new funding approaches for Global Health	2021-2022

	프로젝트명	연도
	and Climate Transitions	
12	Diffusion of transformative technologies: AI	2021-2022
13	Measuring science and innovation for the green transition	2023-2024
14	Mission-oriented policy approaches for sustainable transitions	2023-2024
15	Capability and skills needs for STI systems in transitions	2023-2024
16	STI policy for transitions: inclusive and effective approaches	2023-2024
17	S&T Policy 2025: Enabling transitions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2023-2024
18	Transformative STI governance models	2025-2026
19	Policy experimentation for transitions	2025-2026
20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guidelines for transformative missions	2025-2026
21	Implementing CSTP's Transformative Agenda for STI policies	2025-2026

자료: 연구진 작성

<표 13> 담론 관련 OECD Outlook 주제 현황

	챕터명	출처
1	Ch.1 Progress Towards a Knowledge-based Economy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0
2	Ch.1 Strengthening the Knowledge-based Economy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2
3	Ch.2 Transitioning to green innovation and technology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2
4	Ch.3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for Sustainability Transition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3

자료: 연구진 작성

2)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인력 이슈는 우선 2010년대 초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가 2020년대 다시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초까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우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성(mobility) 이슈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박사 학위자들의 경력 경로(career path)를 분석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과학기술인력의 국가 간 이동성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이유는 1980년대 무역 및 자본 흐름이 자유화되면서 1990년대부터 첨단 기술 관련 우수 인력들을 해외

에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된 정책 환경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2년 Outlook에서 독립적인 챕터로 심도있게 다뤄졌다. 또한 OECD 사무국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주제들에서도, 인력의 이동성에 대한 이슈가 2003-2004, 2009-2010, 2011-2012 동안 다루어져 상당한 기간 동안 핵심 의제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력 이슈는 2012년 이후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후 최근에 들어서서 OECD가 제기하는 변혁적 과학기술정책 어젠다¹⁶⁾에서 인력 이슈가 포함되고, 유럽연합과 함께 연구자들의 경력경로에 대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연구혁신경력관측소(Research and Innovation Careers Observatory: ReICO) 사업이 2024년 4월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론칭되면서 다시 중요한 의제로 부각된 상황이다.

2020년경부터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이슈는 향후 연구자들의 경력경로에 대한 데이터 축적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개인이나 조직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2023-2024 TIP 프로젝트), 포닥(Post-Doc)과 같은 연구 취약계층의 현황과 대안은 무엇인지 등(2019-2020 GSF 프로젝트)으로 보다 세분화되는 경향도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4> 과학기술인력 관련 OECD Outlook 주제 현황

	챕터명	출처
1	Ch.8 International Mobil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ersonnel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2
2	Ch. 5 Ensuring the Supply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4
3	Ch. 3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rends and Policie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6
4	Ch. 8 STI policy profiles: Human resources for innovation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2
5	Ch. 3 Challenges and new demands on the academic research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1

자료: 연구진 작성

16) 변혁적 과학기술정책 어젠다에는 10개의 정책 분야가 제시되어 있고, 그 중 하나로 인력이 스킬과 역량 관점에서 다뤄짐. 10개 정책 분야는 Public STI Funding & Private Finance; Research & Technical Infrastructure; Enabling Technologies; Skills & Capabilities; Market & Structural Conditions; Strategic Intelligence Capabilities; Society-STI Engagement; STI Cooperation; Cross-Government Coherence; International Relations이 있음(OECD, 2024).

<표 15> 과학기술인력 관련 OECD PWB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연도
1	Diffusing knowledge through greater mobility of scientific personnel	2003-2004
2	International mobility of the HRST	2003-2004
3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2005-2006
4	Human resources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2007-2008
5	Development of a new database and analysis of the career paths and mobility of doctorate holders	2009-2010
6	Analytical report on the contribution of human capital to innov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cluding micro-data analysis	2009-2010
7	Report on human capit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09-2010
8	Report on fostering mobility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innovation	2009-2010
9	Analytical report on human resources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database	2011-2012
10	Update of the database on the career paths and mobility of doctorate holders and improved metrics on researchers and skills for innovation	2011-2012
11	Report on human resourc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2011-2012
12	Capability and skills needs for STI systems in transitions	2023-2024

자료: 연구진 작성

3) 기술(세부기술)

OECD에서 바이오작업반과 나노기술작업반이 통합된 2015년 이전의 PWB를 살펴보면, 바이오기술보다 나노기술에 관련된 프로젝트 수가 월등히 많고 이슈들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2011~2012년 동안 나노 관련 프로젝트들은 총 7건으로 나노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규제 툴(tools), 기존의 통계와 데이터베이스, 사회적 차원들, 융합기술로의 통합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졌다.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프로젝트 제목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2015년 이전에는 다양한 바이오 분야의 권고문들이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2006년 유전자 발명 라이선스에 대한 권고문, 2007년 분자 유전자 검사 품질 보증에 관한 권고문, 2009년 인간 바이오뱅크 및 유전자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고문, 2012년 바이오 기반 제품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권고문, 2012년 임상시험 거버넌스 권고문들이 그 예

이다. 권고문의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유전자 연구와 관련된 세부지침 차원의 권고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는 부분이 흥미롭다.

한편, 2015년 이후에는 나노기술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신경기술(neurotechnology)을 중심으로 책임있는 혁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신경기술에 대한 논의 결과는 2019년 신경기술의 책임있는 혁신에 관한 권고문으로 이어졌다. 또한 2025년부터는 신기술들에 대한 전략적 인텔리전스(Strategic intelligence)와 예측적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가 주된 테마로 등장할 예정이며, 세부 기술로는 AI와 양자(Quantum) 기술도 주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STI Outlook을 살펴보면, PWB와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나타난다. 가령 2018년 즈음에는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보다 세부적인 기술들인 로봇 기술, 합성생물학 기술들이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Outlook에서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다뤄진 이유로는 2016년 다보스 포럼 이후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가장 최근인 2023년 Outlook에서는 신기술의 예측적 거버넌스를 제기하면서 세부 기술보다는 신기술 전반에 대해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하고 관리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STI Outlook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6> 세부 기술 관련 OECD PWB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연도
1	Biotechnology - life Sciences and Technologies	2001-2002
2	Biotechnology for human health	2003-2004
3	[8.Life Sciences and Technologies] 8c.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2003-2004
4	[8.Life Sciences and Technologies] 8b. Biological resource centres (BRCs)	2003-2004
5	[8.Life Sciences and Technologies] 8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03-2004
6	Biotechnology - Life Sciences and Technologies	2005-2006
7	Statistical framework for nanotechnology	2009-2010
8	Monitoring and benchmarking report on nanotechnology developments	2009-2010

	프로젝트명	연도
9	Policy report on addressing challe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specific to nanotechnology	2009-2010
10	Four policy roundtables and reports on key policy issues related to nanotechnology (e.g. convergence)	2009-2010
11	Two policy reports on fostering nanotechnology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2009-2010
12	Report on fostering international scientific cooperation in nanotechnology	2009-2010
13	Scoping report on policy environments and governance for innovation and sustainable growth through nanotechnology	2011-2012
14	Two policy reports on regulatory tools for nanotechnology in food and medical products, and on nanotechnology in green innovation	2011-2012
15	Stocktaking report on existing statistics, data and databases for nanotechnology	2011-2012
16	Analytical report and workshop on statistics, data and databases for nanotechnology	2011-2012
17	Scoping report on social dimensions of nanotechnology	2011-2012
18	Analytical report and workshop on social dimensions of nanotechnology	2011-2012
19	Analytical report on the integration of nanotechnology in convergent technologies	2011-2012
20	Achieving sustainable growth in the bioeconomy	2017-2018
21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and converging technologies (BNCT) statistics and policy evaluation	2017-2018
22	Open and responsible innovation for health technologies	2017-2018
23	Responsible Innovation in Neurotechnology and Society	2019-2020
24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toolkits for OECD recommendations: neurotechnology	2021-2022
25	AI in science: the role of large language models for science and research governance	2025-2026
26	Enhancing strategic intelligence for critical emerging technologies	2025-2026
27	Applying the Framework for anticipatory governance to converging technologies	2025-2026
28	The promise of quantum technologies: impacts on science and breakthrough innov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2025-2026

자료: 연구진 작성

<표 17> 바이오 등 세부기술 관련 OECD 권고문

	권고안 명	채택일시	현황
1	신경기술의 책임 있는 혁신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sponsible Innovation in Neurotechnology	2019.12.11	시행 중
2	임상시험 거버넌스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Governance of Clinical Trials	2012.12.10	시행 중
3	바이오 기반 제품의 지속 가능성 평가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ssessing the Sustainability of Bio-Based Products	2012.07.17	시행 중
4	인간 바이오뱅크 및 유전자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Human Biobanks and Genetic Research Databases	2009.10.22	시행 중
5	분자 유전자 검사 품질 보증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Quality Assurance in Molecular Genetic Testing	2007.05.10	시행 중
6	유전자 발명 라이선스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Licensing of Genetic Inventions	2006.02.23	시행 중

자료: OECD Legal Instruments 홈페이지¹⁷⁾

<표 18> 세부기술 관련 OECD Outlook 주제 현황

	챕터명	출처
1	Ch. 2. Transitioning to green innovation and technology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2
2	Ch.2.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technologies of 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18
3	Ch.3. Perspectives on innovation policies in the digital age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18
4	Ch. 5.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in science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18
5	Ch.12 The digitalisation of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18
6	Ch.6. Why accelerate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robot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1
7	Ch.7. Accelerating innovation to meet global challenges: The role of engineering biology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1
8	Ch.6. Emerging technology governance: Towards an anticipatory framework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3

자료: 연구진 작성

17)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 (검색일: 2024.9.12.)

4) 연구데이터

연구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공유는 오픈 사이언스라는 개념과 함께 오랫동안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어 왔다. PWB 기록에서 보면, OECD에서는 2005년부터 공공 자금을 활용하여 창출된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2004년 파리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공 자금 지원을 통한 연구 데이터 액세스 선언문’의 후속조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2006년에 ‘공공 자금 지원을 통한 연구 데이터 접근에 관한 권고문’이 채택되었으며, 지금까지 시행 중이다.

오픈 사이언스라는 표현은 2013년부터 OECD PWB 프로젝트명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단순히 연구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자금이 투입된 연구에 대한 데이터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에 관한 요구들이 명확하게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에 채택된 권고문은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 강화에 관한 권고문’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공유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Outlook에서 보면 오픈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챕터명으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2021년 보고서 본문에서 12번, 2023년 Outlook에서는 16번 등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PWB나 Outlook 상에서는 확인이 어렵지만, 2024년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는 오픈 사이언스 관련 논의에서 연구안보에 대한 이슈도 함께 제기되었다. 즉 미중패권 경쟁 속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연구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우려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논의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데이터나 성과들이 오픈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완해 가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표 19> 연구데이터 관련 OECD PWB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연도
1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	2005-2006
2	One analytical report scoping the potential for a policy recommendation on open science and new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for fostering innovation, especially related to green growth	2013-2014
3	One policy recommendation on open science and new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for fostering innovation, especially innovation related to green growth	2013-2014
4	Access to Research Data	2019-2020
5	Enhancing the Use of Data about Publicly-Funded Research and Innovation	2019-2020
6	Implementing and monitoring open science principles	2025-2026

자료: 연구진 작성

<표 20> 연구데이터 관련 OECD 권고문

	권고안 명	채택일시	현황
1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 강화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Enhancing Access to and Sharing of Data	2021.10.06	시행 중
2	공공 자금 지원을 통한 연구 데이터 접근에 관한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	2006.12.14	시행 중 (2021.01.20 개정됨)
3	공공 자금 지원을 통한 연구 데이터 액세스 선언문 Declaration on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	2004.01.30	2017.07.01. 폐지

자료: OECD Legal Instruments 홈페이지¹⁸⁾

5) STI 정책

PWB 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STI 정책 차원에서의 시기별 특징으로는 2010년경까지는 정책평가에 대한 논의들이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 정책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론들과 사례연구를 통해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과학기술이 어떤 경제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임팩트에 대한

18)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 (검색일: 2024.9.12.)

논의들이 많아졌다. 이는 글로벌 차원의 저성장,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에의 공공자금 투자를 유지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당시 정책적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R&D 자금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과학기술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R&D 펀딩의 현황과 대안을 찾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을 통해서 명확한 미션 해결을 지향하는 과학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STI Outlook에서는 2000년과 2002년에 민간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두 차례 다뤄졌으며, 2008년에는 공공 R&D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측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였으며, 2021년과 2023년에는 PWB에서와 유사하게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 자금 조달, 공공 펀딩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또한 2023년 Outlook에서는 넷제로와 관련된 임무중심 혁신정책이 하나의 챕터로 다뤄졌다.

<표 21> STI 정책 관련 OECD PWB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연도
1	Management of S&T Policy	2001-2002
2	Four reports and methodologies related to strengthening the evaluation of science and innovation policies	2007-2008
3	Six reports relating to the assessment of national science and innovation policies and instruments	2007-2008
4	Follow-up to the 2006 Blue Sky Conference: development and publication of new indicators for innovation policies (including indicators of modes of innovation, commercialisation of innovation, evaluation of public research, human capital, patterns, composition and location of knowledge flows)	2009-2010
5	Analytical report on the impact of public incentives for innovation, including micro-data analysis	2009-2010
6	Report on evaluation and impact assessment of innovation policies	2009-2010
7	Report on improving toolkits for the steering and funding of research institutions	2009-2010
8	Follow-up to the 2010 Innovation Strategy: new metrics and analysis for policy evaluation	2011-2012
9	Two statistical reports on databases/indicators for developing new tools and techniques to analyse the economic impacts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3-2014

	프로젝트명	연도
10	Four analytical reports, one statistical report and one policy recommendation on developing new tools and techniques to analyse the economic impacts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3-2014
11	Three analytical reports analysing the role and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2013-2014
12	One analytical report plus deepening of the work on analysing the role and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2013-2014
13	One analytical report on the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economic growth - a synthesis	2013-2014
14	One analytical report scoping the potential for a policy recommendation on open science and new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for fostering innovation, especially related to green growth	2013-2014
15	One policy recommendation on open science and new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for fostering innovation, especially innovation related to green growth	2013-2014
16	Measuring the activities of researchers and the impact of science policies	2015-2016
17	The impact of public support for business R&D and innovation	2015-2016
18	The impact and measurement of key enabling, emerging and converging technologies based on the life and physical sciences	2015-2016
19	Report on satellite technologies: Indicators and socio-economic impacts	2015-2016
20	Measuring the incidence and impact of public support for business R&D and innovation	2017-2018
21	Mobilising impact assessment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innovation policy mix	2017-2018
22	Measuring the Mix, Incidence and Impact of Public Support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19-2020
23	New Models for Government Funding of Research and Innovation	2019-2020
24	Public support for research and innovation: directionality and impacts	2021-2022
25	Financing STI for the SDGs: new funding approaches for Global Health and Climate Transitions	2021-2022
26	Implementing mission-driven approaches	2021-2022
27	Public support for research and innovation: directionality and impacts	2023-2024
28	Mission-oriented policy approaches for sustainable transitions	2023-2024
29	Public support for research and innovation: measuring directionality and impacts	2025-2026
30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guidelines for transformative missions	2025-2026

자료: 연구진 작성

<표 22> STI 정책 관련 OECD Outlook 주제 현황

	챕터명	출처
1	Ch.6 The Impact of Public R&D Expenditure on Business R&D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0
2	Ch.3 Public and Private Financing of Business R&D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2
3	Ch.4 Assessing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Public R&D: Recent Practices and Perspective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8
4	Ch.2 Mobilising public research funding and infrastructures in times of crisi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1
5	Ch.8. New trends in public research funding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1
6	Ch.4 Mobilising science in times of crisis: Lessons learned from COVID-19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3
7	Ch.5 Reaching Net zero: Do mission-oriented policies deliver on their many promise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3

자료: 연구진 작성

제3절 소결

1. 요약 및 특징

1961년에 설립되어 2023년 기준 3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OECD는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 회원국 간 정책 경험 공유를 통한 상호 학습, 국제규범 제정 등으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해 왔다.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OECD 과학기술정책 위원회에서도 STI Outlook 등을 통해 핵심적인 과학기술 정책 및 기술의 변화를 전망하고 선언문, 권고문 등을 통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규범 논의를 이끌어왔다. 예를 들어 2019년 OECD ‘신경기술의 책임 있는 혁신에 관한 권고문’ 제정은 유네스코 등 타 국제기구로 이어져 글로벌 논의가 심화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CSTP에서 생산하는 프라스카티 매뉴얼과 오슬로 매뉴얼 기반의 과학기술 통계들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CSTP는 STIP Compass를 통해 격년 단위로 회원국들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국가별 과학기술 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이처럼 OECD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차원의 싱크탱크로 과학기술 분야의 최신 동향과 데이터, 그리고 인사이트를 제공해 왔으며 향후 전망을 통해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글로벌 논의를 주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STP는 과학기술 전반에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심화시켜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CSTP에서 다뤄지는 의제들은 PWB 프로젝트를 통해 2년 동안 다뤄지고, PWB 제안서에 대한 논의가 N-2년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어, CSTP/산하작업반 논의를 거쳐 회원국의 투표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N년부터 2년 간 수행을 거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선정-수행-평가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OECD는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38개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기구인 만큼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에서 합의된 글로벌 의제와는 적용범위 차원에서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OECD가 선진국 중심의 국제기구이고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회원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OECD가 지향하는 목표가 회원국들의 경제성장, 금융안정, 세계무역 확대 등이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UN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CSTP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CSTP에 참여하는 옵저버 기구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1972년 이래로 단 3개의 국제기구들만이 CSTP 혹은 산하작업반에 옵저버로 참여해 왔는데 옵저버 기구들을 13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125차 CSPT 정기총회에서 논의하였다. 기존 3개의 국제기구들은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CoE),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이 있고, 추가 고려중인 10개 국제기구들로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이베로아메리카국가기구(Ibero-American States Organisation: OEI),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ADB),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UNESCO), 유엔 과학기술개발위원회 대표(United Nations, represented by the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CSTD),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WIPO), 세계은행(World Bank: WB)이 있다 (CSTP, 2024). 이렇게 옵저버 기구들을 대폭 확대하는 것과 함께 CSTP 주도로 과학 기술 관련 국제기구들이 모여 최근 이슈들을 공유하는 회의(CSTP Dialogue with International Organisations)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등 타 기구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OECD의 글로벌 의제선도 기능은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포스트 2030 의제화를 위한 시사점**

포스트 2030 차원에서 새로운 의제를 한국이 선도해 가려고 한다면, OECD CSTP 는 매우 유용한 다자협의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CSTP가 글로벌 의제 선도를

위한 싱크탱크라는 점 이외에도 이미 CSTP와 산하작업반에 국내 연구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의장단 및 전문가그룹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CSTP 차원에서 의제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CSTP는 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과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만큼, CSTP에서 의제 선도를 통해 타 기구들로 확산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의제 차원에서는 앞서 핵심 이슈들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담론 차원에서는 전환 및 변혁(transition/transformation), 인력 차원에서는 연구자들의 경력경로 모니터링, 세부기술 차원에서는 신흥기술 거버넌스, 연구데이터 측면에서는 오픈사이언스와 연구안보, STI 정책 차원에서는 R&D 펀딩과 임무지향형 혁신정책 등으로 이슈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해당 이슈들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이 이슈들이 심화될 수 있는지 국내에서도 심층 논의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입장과 관점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주요 인사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특정 이슈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워크숍 유치 등의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